

毛詩序著者考

金 時 俊

目 次

- | | |
|---------------|--------------|
| 一. 序 論 | 3. 毛詩序와 三家詩序 |
| 二. 歷代毛詩序著者說演變 | 4. 歷代毛詩序著者諸說 |
| 1. 毛 詩 | 三. 結 論 |
| 2. 毛公·毛亨·毛萇 | |

一. 序 論

詩經 三百十一篇은 周初(B.C. 1122)부터 春秋中期(B.C. 570)까지의 約五百餘年間に 이루어진 詩¹⁾를 輯集한 中國古代의 詩歌集이며 中國最古의 文學作品集이다. 그러나 文學作品集이라는 表現은 어디까지나 現代 學者들의 表現이지 清代以前까지만 하여도 결코 이런 表現은 使用되지 않았다. 그것은 先秦 經典中の 하나로 神聖視되어 傳來되었고 그의 注解는 禮敎의 基本思想下에 이루어져 왔다.

詩經은 別稱 毛詩라고도 한다. 詩經은 他經典과 더불어 秦火로 散佚되었다가 西漢初에 齊·魯·韓의 三家詩와 稍後에 毛詩가 出現하였다. 그러나 三家詩는 東漢末以後 漸次 亡佚되고 毛詩만이 現今까지 傳來되어 毛詩는 마치 詩經의 代名詞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現存의 毛詩는 先秦代에 輯集된 詩經의 原文을 傳하기만한 것이 아니고 毛公이 註解한 詁訓傳이 있고 또 東漢末의 鄭玄의 箋이 있으며 또 詩經 每篇의 首端에 題解한 詩序가 있다. 따라서 現存의 毛詩를 正確하게 말한다면 詩毛傳鄭箋이라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詩經研究에 있어 最初로 逢着하는 것이 詩每篇의 首端에 있는 詩序이다. 이 詩序는 讀者들이 詩를 鑑賞하고 理解하는 先導의 役割을 하고 있다. 卽 詩序의 首句에는 거이 「……를 讚美한 것이다」라든가 또는 「……를 諷刺한 것이다」라고 시작되고 있다. 고로 詩經의 讀者는 詩序에 依하여 先入見을 갖이고 詩經을 鑑賞하게 된다. 그런데 詩序와 詩의 內容을 對照·詳考하여 보면 詩의 本意와 詩序가 대부분이 相違됨을 發見하게 되고 따라서 詩序에 대한 疑問이 發生하게 된다. 이러한 疑問은 唐代에서 부터 몇몇 學者에 依하여 萌芽되더니

1) 劉大杰의 中國文學發展史, 第二章, 周詩發展의 趨勢參照

高亨의 詩經引論에는 詩經의 著作時代를 B.C. 1066~B.C. 541前後라고 한다.

宋代에 와서는 詩經學界의 最大의 爭點이 되어 그 論爭이 極에 到達한 感이었다. 이에 따라 詩序의 著者가 어느 時代의 누구이며 왜 이렇듯 詩經을 歪曲시켰는가 하는 問題가 擡頭된다. 宋代 鄭樵는 詩序의 著者를 심지어 「村野妄人作」이라고 酷毒하게 批難하였고 朱憲은 詩經集傳을 세 차례나 改書하다가 중당에는 詩序를 詩經에서 削除하는 勇斷까지 내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詩序擁護派 學者들은 詩는 直叙가 아닌 隱喻이므로 詩의 本事를 모르고는 詩의 解釋이 成立될 수 없다고 對立하고 있다. 그런데 詩序의 無價値論을 主張하면서도 詩經을 儒家經典의 하나로 看做하고 禮敎의 基本思想下에서 註解하고 있는 學者들이 있다. 이들은 비록 詩序를 廢하기는 하였으나 詩序의 基本思想인 儒家의 禮敎와 政敎思想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詩序를 踏襲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만다. 고로 詩經을 儒家經典이 아닌 古典藉으로 看做하고 歷史的 觀點으로 討究하려는 清代의 一部學者들조차도 詩經을 古代文學作品으로 看做하고 文學的 觀念으로 討究하려는 現代 學者들에 의해 그들도 詩序의 範圍에서 逸脫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을 免치 못하고 있다.

詩序의 論爭은 唐代以後·宋·明·清代를 거쳐 現今에 까지 이어져 왔고 또 詩經學에 그만큼 影響을 미치고 있다.

本稿에서는 歷代 諸學者들의 詩序에 對한 見解를 考察하고 毛詩序의 著者가 어느 時代 누구이며 어떠한 意圖下에 著述하였는가를 考究한다.

二. 歷代毛詩序著者說演變

詩經의 傳來에 대하여 漢書藝文志에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詩經二十八卷，魯，齊，韓三家。

漢興：魯申公爲詩訓故，而齊轅固，燕韓生，皆爲之傳。或取春秋，采雜說，咸非其本義，與不得已；魯最爲近之。三家皆列於學官。又有毛公之學，自謂子夏所傳；而河間獻王好之，未得立。

詩經은 漢代初에 魯의 申培，齊의 轅固，燕의 韓嬰，세 사람에게 의하여 各已 傳授되었으며 이 三家의 詩는 學官에 列立되었고，또 후에 子夏로부터 傳授되었다고 自稱하는 毛公의 詩經이 나왔는데 河間獻王이 그것을 好學 하였으나 學官에는 列立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詩經이 戰國末의 浩劫을 거쳐 누구에 의해 그들 三家에게 傳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記錄이 없다. 다만 毛詩에만 「自謂子夏所傳」이라고 하였으나 漢書를 撰述한 班固조차도 客觀的으로 믿을 수 없다는 語套로 記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詩經의 傳來는 이미 前漢代조차도 不分明했던 것 같다.

隋書經籍志에는 漢代以後 詩經의 傳來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漢初有魯人申公，受詩於浮丘伯，作詁訓，是爲魯詩。齊人轅固生亦傳詩，是爲齊詩。燕人韓嬰亦傳詩，是爲韓詩。終於後漢，三家並立。漢初又有趙人毛萇善詩，自云子夏所傳，作詁訓傳，是爲毛詩古學，而

未得立 後漢有九江謝曼卿, 善毛詩, 又爲之訓. 東海衛敬仲, 受學於曼卿. 先儒相承謂之毛詩序, 子夏所創, 毛公及敬仲又加潤益. 鄭衆, 賈逵, 馬融並作毛詩傳, 鄭玄作毛詩箋. 齊詩魏代已亡之, 魯詩亡於西晉. 韓詩雖存, 無傳之者. 唯毛詩鄭箋至今獨立.

唐代 魏徵 등이撰한 隋書經籍志가 漢代의 班固가撰한 前漢書보다 더 詳細하게 記述되어 있다. 즉 魯人 申公은 浮丘伯에게서 詩를 傳授받았다고 하였고 또 毛公은 趙人 毛萇이라고 했다. 毛詩는 後漢代에 와서 謝曼卿이 이어받고 또 衛敬仲이 그것을 傳授받았다고 했다. 그 밖에 鄭衆·賈逵·馬融 등이 모두 毛詩傳을 짓고 鄭玄이 毛詩箋을 지었다고 했다. 그리고 三家詩중 齊詩는 魏代에, 魯詩는 西晉代에 亡佚되고 韓詩가 殘存하고 있으나 傳授하는 사람이 없으며 毛詩鄭箋만이 當世에 詩經을 代表하고 있다 하였다.

이러한 記述로 보아 隋代에 이미 三家詩는 完全히 消滅되었거나 거의 消滅되고 毛詩만이 行世하였음을 알 수 있다. 清代에 이르러 여러 學者들이 漢代의 典籍에 引用된 三家詩를 抽出하여 그것들의 殘缺本을 만들어 現今에는 三家詩의 面貌를 窺知할 수 있게 되었다.

1. 毛 詩

前漢代에 學官에까지 列立되고 盛行하였던 三家詩가 後漢代에 와서 衰退하기 시작하고 學官에도 列立되지 못하였던 毛詩가 後世에 獨行한 理由는 무엇이였을까? 鄭樵(漁仲 1104~1160)는 詩辨妄에서 다음과 같이 論했다.

齊魯燕趙四詩, 土音不同, 訓詁亦異. 故孔穎達曰. 「三家之詩, 字與毛詩異者, 動以百數.」 及證之他書, 三家之學, 非徒字異, 亦併與文義俱異矣. 當武帝時毛詩始出, 自以源流出於子夏. 其書貫穿先秦古書. 惟河間獻王好古, 博見異書, 深知其精. 時齊魯韓三家皆列於學官, 獨毛詩不得立. 中興後, 謝曼卿. 衛宏, 賈逵, 馬融, 鄭衆, 康成之徒, 皆宗毛詩, 學者翕然稱之.

齊. 魯. 韓. 毛 四家詩는 그 字音이나 訓詁가 각기 다르며 三家詩는 漢初에 이미 學官에 列立되었으나 毛詩만은 漢武帝때에 뒤늦게 出現되어 學官에 列立되지 못했다. 河間獻王이 他書와 比較하여 보고는 그것이 더 精美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後漢때 부터 學者들이 毛詩를 學習하고는 모두 그의 훌륭함을 칭찬했다고 했다. 그러나 三家詩를 '尊重하는 淸, 魏源(默深, 1794~1856)은 詩古微에서 毛詩보다는 三家詩가 더 優秀하다고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齊詩先采蘋而後草蟲, 與儀禮合. 小雅四始五際次第, 與樂章合. 魯詩說碩人, 二子乘舟, 載馳, 黃鳥, 與左氏合. 說抑及昊天有成命, 與國語合一. 說驕虞, 樂官備與射義合. 說凱風, 小弁, 與孟子合. 其不合諸書者安在? 在而毛詩則動與軹輅, 其合諸書又安在?

魏源은 齊詩와 魯詩중 數篇을 例舉하고는 이것들이 先秦古籍인 儀禮, 樂記, 左傳, 國語, 孟子等 諸書와 꼭 附合되나 毛詩는 附合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鄭樵의 「其書貫穿先秦古

書」라고한 것을 反駁한 것 같으나 實은 毛詩가 先秦古籍에 附會한 것이 尤甚하다.

謝无量은 詩經研究 第一章 詩經總論에서 毛詩가 獨傳하게 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至於毛詩所以獨傳的緣故。我看有以下三種理由。(一) 三家詩傳世已久，人情厭故喜新，毛詩新出，故能風行一時。(二) 鄭君當時大儒，聲望甚著，獨爲毛詩作箋，故學者群起附和。(三) 西漢博士習氣最壞，三家詩久立學官，多被牽入緯書雜說，毛詩獨較純正，傳箋又復平實簡要，易於傳習。

上記한 바와 같이 謝无量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三家詩가 傳世한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厭故喜新」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毛詩에 興味를 갖이고 이것만 愛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論理는 옳지 못한 것 같다. 대수롭지 않은 說이라도 새로운 說이 나오면 모든 學者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것에만 集中하였다라는 說은 妥當치 못하다. 두번째로는 當世의 著名한 大儒인 鄭玄이 毛詩의 箋을 지었으므로 모든 學者들이 附和했다는 것인데 事實 鄭玄은 처음 韓詩를 공부하였다가 후에 毛詩가 더 낫다고 생각되어 毛詩의 箋을 지었을 것이다. 이 項도 首肯이 가지 않는다. 세번째로는 西漢時代, 學官의 博士들의 버릇이 고약하여 三家詩에 緯書나 雜說을 附合시켜 難解하게 만들었으나 毛詩만은 비교적 純正하고 또 傳箋이 平實하고 簡易하여 學習하기 容易하였기 때문에 獨傳되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項에 對하여는 後述하기로 한다.

생각하건데 毛詩가 獨傳한 理由는 毛詩가 三家詩에 比하여 儒家의 傳統思想에 가장 附合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漢代는 비록 儒家思想을 根幹으로 國家觀을 確立시켰으나 오랜 太平盛世로 陰陽思想이 크게 彌滿되었다. 따라서 前漢末에는 「織緯之學」이 盛行하여 謝无量이 上述한 바와 같이 學官에 列立된 三家詩에 조차 緯書와 雜說이 浸入되었다. 詩經뿐만 아니라 經書를 모두 織緯說로 解釋하는 風潮가 盛行하였다. 이 무렵에 發生한 것이 古文經書의 出現事件이다. 古文經書는 漢 武帝末에 孔子의 舊宅에서 「春秋左傳」, 「尙書」, 「禮記」, 「論語」, 「孝經」等 數十篇이 發見된 것이다.²⁾ 이것들은 모두가 當世에 使用하던 今文, 즉 篆書가 아닌 古文 즉 科斗文字로 되어 있었다. 皇帝는 이것들을 모아 劉向等에게 校閱을 命하였다. 후에 劉向이 죽고 아들 劉歆이 先父에 이어 校閱하였다. 劉歆은 漢 武帝때 河間獻王에 의하여 世上에 出現된 毛詩를 古文에 包含시켜 學官에 古文博士를 列立할 것을 皇帝에게 奏上했으나 今文家들에 依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詩經의 四家詩는 秦火以後 모두가 口傳되어 온것을 記述한 것이므로 文字上的 異同은 多少있을뿐 今文이니 古文이니 하는 區分은 없었다.³⁾ 다만 毛詩가 古文經이 나올 무렵에 出現된 것이라고 하여 古文家들이 그것에 包含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古文經은 漢代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今文經만이 行世하던 時代였으므로 毛詩 또한 같은 運命에 놓이게 된 것이다.

2) 漢書藝文志 「武帝末，魯共王壞孔子宅，欲以廣其宮，而得古文尙書及禮記論語孝經，皆古字也」

3) 林尹著 中國學術思想大綱 六藝篇參照

이미 上述한 바와 같이 漢代의 學術思想이 儒家思想을 根幹으로 하고 있으면서 織緯說이 混入되어 本來의 孔子思想과는 變質된 儒家思想이 되었고 또 經解도 그런 方向으로 變質되어 갔다. 後漢末에 이르러 많은 儒家들이 變質된 儒家思想에 嫌惡를 갖게 되자. 當代의 著名한 學者들인 馬融, 鄭玄 등이 古文經을 갖이고 傳統의 儒家思想에 附合시켜 經解하기 시작하니 많은 學者들이 이에 追從하기에 이르렀다. 毛詩도 이에 따라 三家詩와는 別途의 詁訓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이른 바 毛詩傳箋인 것이다. 따라서 毛詩가 三家詩보다 더 優秀하고 劣等하고의 問題 이전에 儒家의 傳統思想을 要求하는 當代에 가장 迎合된 詩經의 註解書였기 때문에 獨傳된 것이지 결코 平實簡要하다거나 厭故喜新하는 人情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毛詩는 前漢末에 王莽이 專權을 掌握하고 專橫하던 平帝時에 一時 左氏春秋·古文尙書·逸禮等과 더불어 四種이 古文博士로 列立되었으나 어디까지나 一時일 뿐 後漢代에 와서는 다시 學官에서 逐出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後漢代에도 毛詩는 學官에 列立되지 못하고 後漢이 滅한 후 三國의 魏代에 와서 今文經을 물리치고 古文經이 經學의 傳統을 繼承하게 되면서 毛詩도 浮上하게 되고 反面에 三家詩는 一路 衰微하여 간다.

오늘날까지 傳來되고 있는 詩經은 漢書藝文志에 記載되어 있는 毛詩二十九卷과 毛詩故訓傳三十卷중 毛詩故訓傳三十卷뿐이다.

2. 毛公, 毛亨, 毛萇

毛詩의 撰者는 누구인가? 漢書에는 다만 「毛公」 또는 「趙人 毛公」이라고만 記述하고 있는데 後世에 撰述된 隋書에는 漢初의 「趙人 毛萇」이라고 明記되어있다.

漢書 儒林傳에 :

毛公, 趙人也. 治詩, 爲河間獻王博士, 授同國賢長卿, 長卿授解延年, 延年爲阿武令, 授徐敖, 敖授九江陳俠, 爲王莽講學大夫, 由是言毛詩者本之徐敖

班固(孟堅 32~92)가 漢書를 撰述할 當時에는 毛詩의 撰者가 趙나라 사람 毛氏인 것만 알았고 이름은 몰라 列傳에 登載하면서 毛公이라고 姓만 記述하고 그후의 傳授人은 姓名을 明確히 記錄하고 있다.

毛詩正義, 關雎篇에서 孔穎達은 鄭玄의 詩譜에서 引用하기를 :

魯人大毛公爲詁訓傳於其家, 河間獻王得而獻之, 以小毛公爲博士.

鄭玄의 時代에 와서는 毛公이 두 사람으로 增加된다. 詁訓을 지은 사람은 魯나라의 大毛公이고, 博士가된 사람은 小毛公이다.

또 三國, 吳의 陸璣는 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서 記述하기를 :

毛亨作詁訓傳, 以授趙國毛萇. 時人謂亨爲大毛公, 萇爲小毛公.

陸璣代에 와서는 더욱 詳細하여져 詁訓을 著述한 사람은 毛亨이고, 이를 世稱 大毛公이라 하며 이 詁訓傳을 傳授받은 사람은 趙人 毛萇으로 世稱 小毛公이라하고 있다.

後漢書 儒林傳에는 :

趙人毛萇傳詩，是爲毛詩

南北朝代의 范曄(蔚宗 398~445)은 趙人 毛萇이 詩를 傳했는데 이것이 毛詩이다라고 한다.

上記 史料에 의하면 班固(32~92)가 漢書를 撰述할 때는 毛詩詁訓을 著作하여 傳한 사람이 趙나라의 毛公 한 사람인데, 鄭玄(康成, 127~200)이 詩譜를 著述한 때는 毛詩詁訓을 著述한 大毛公과 博士가된 小毛公 두 사람이 된다. 三國 吳(222~280)의 陸璣가 毛詩草木鳥獸蟲魚疏를 著述한 때는 詁訓傳을 지은 것은 毛亨으로, 이를 大毛公이라하고, 이것을 傳授받은 것은 趙나라의 毛萇으로 이를 小毛公이라 하고 있다. 鄭玄과 陸璣의 說을 綜合하면 詁訓傳을 지은 大毛公은 魯나라의 毛亨이고 이것을 傳授받아 博士가된 것은 小毛公으로 趙나라의 毛萇이 된다. 그렇다면 班固가 말한 毛公은 詁訓傳을 지은 魯나라의 毛亨이 아니라 趙나라의 毛萇이 된다. 과연 班固가 漢書에 毛公의 列傳을 著錄하면서 두 사람의 毛公이 있었음을 모르고 한 사람의 毛公 卽 詁訓傳을 傳授받은 趙나라의 毛萇만을, 그것도 名字를 몰라 毛公이라고만 하였겠는가 하는 것은 問題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古事가 後代에 올수록 더욱 明確하고 詳細하여지는 것은 疑心の 餘地가 있다.

鄭玄이 「魯人大毛公爲詁訓傳於其家，河間獻王得之」라고한 것은 疑心이 된다. 河間國은 漢書 地理志 卷八下에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河間國，故趙，文帝二年別爲國。

河間國은 옛 趙나라 땅이다. 그렇다면 毛亨은 본래 魯나라 사람인데 趙에 移徙와서 살며 治詩했다는 것인가? 또 그가 魯人이라면 마땅히 三家詩중의 魯詩와 毛詩가 類似한 點이 많아야하겠으나 그렇지 않다. 毛詩는 趙나라에서 傳來되어 왔으며 魯詩와는 系統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따라서 鄭玄이 말한 「魯人毛亨」은 「趙人毛亨」의 誤傳이 아닌가 한다. 河間獻王德은 漢景帝의 아들로 景帝2年(B.C. 155)에 河間王으로 冊封되었으며 그후 26年(B.C. 130)에 죽었다.⁵⁾ 鄭玄의 論理에 따르면 大毛公은 河間獻王以前의 人物이고 河間國의 博士가된 毛萇은 河間獻王과 同時代 人物이 된다. 그렇다면 班固(A.D. 32~A.D.92)와의 距離는 不過 150년부터 250年以內가 되는데 비록 毛公의 名字는 調査中에 失檢되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두 사람의 毛公, 즉 詁訓傳을 지은 毛公과 이것을 傳授받은 毛公이

4) 鄭樵·詩辨妄 「齊魯燕趙四詩，土音不同，訓詁亦異·故孔穎達曰：三家之詩，字與毛詩異者動以百數·及證之他書，三家之學·非徒字異，亦併與主義俱異矣……」

5) 漢書，卷十四上 諸侯王表第二，河間獻王：「景帝子，二年三月甲寅立，二十六年薨」

다음에도 또 年代的으로 크게 相距되지 않음에도 後者인 毛萇만을 記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설사 大毛公과 小毛公이 있었다 할지라도 大毛公은 魯人이고 小毛公은 趙人이라고 한 鄭玄의 說은 妥當하지 못하다.

3. 毛詩序와 三家詩序

隋書經籍志에 「先儒相承謂之毛詩序, 子夏所創, 毛公及敬仲又加潤益」라고 記述되어 있다. 毛詩에는 先儒로부터 相傳되어오는 毛詩序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子夏가 創作하고 毛公과 衛宏(敬仲, 後漢 光武帝年間 A.D. 25~A.D.57에 議郎을 지냈음⁶⁾)이 潤益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詩序는 毛詩에만 있고 다른 三家詩에는 전혀 없는 것인가?

鄭樵(漁仲 1104~1160)는 詩辨妄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했다.

齊詩無序 ……魯詩之序, 有無未可知

또 紀昀의 四庫全書總目提要, 詩序二卷條下에 記述하기를 :

觀蔡邕本治魯詩, 而所作獨斷, 載周頌三十一篇之序, 皆祇有首二句, 與毛序文有詳略, 而大旨則同,

魯詩는 漢代 蔡邕(伯喈 132~192)이 獨斷으로 周頌三十一篇의 序를 著作하였는데 모두가 다만 二句씩으로 되어 있으나 毛詩序보다는 詳細하면서 簡略하고 大旨는 비슷하다고 한다. 이것은 魯詩에는 本來 故序가 없었다는 것을 間接으로 示唆한 것이다. 또 韓勳 藝文志에는 :

韓詩卜商序, 韓嬰注二十二卷.

現存되고 있는 韓詩의 殘缺本인 韓詩外傳에 詩序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片鱗을 窺知할 수 있다.

上述한 諸文獻으로 보아 三家詩中에서 齊詩에는 序가 없고 魯詩에는 本來는 없었으나 漢代에 蔡邕이 周頌三十一篇에 序하였고 韓詩에는 子夏(名卜商 B.C. 507~B.C. 400)의 序가 있었던 것으로 傳하여져 온다. 그런데 清代 三家詩 研究에 功獻한 魏源은 詩古微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水經注引韓詩周南序曰, 其地在南郡南陽之間, 至諸家所引韓詩, 如關雎刺時也. 漢廣說人也. 汝墳辭家也. 采芣傷夫有惡疾也. 黍離伯封也. 蟋蟀刺奔女也. 四月歎征役也. 閔宮有恤, 公子奚斯作也. 那美襄公也. 皆與毛詩首語一例 則韓詩有序明矣

齊詩最殘缺, 而張揖魏人習齊詩. 其上林賦注曰, 伐檀刺賢者不遇明主也. 其爲齊詩之序明矣.

劉向楚元王孫, 世傳魯詩. 其列女傳, 以采芣爲蔡人妻作. 汝南爲周南大夫妻作. 行露爲召南申女作. 視毛序之空銜者, 尤鑿鑿不誣. 且息夫人傳曰, 君子故序之於詩. 黎莊夫人傳曰, 君子故序之以編詩. 而

6) 後漢書 衛宏列傳

向所自著書，亦曰新序。是魯詩有序明矣。

魏源은 水經注와 諸家書에 引用된 韓詩序를 例擧하고 韓詩序가 있었음을 論證하고 있다. 現存하는 韓詩外傳에도 序가 있다는 것은 上述한 바이다.

齊詩는 가장 殘缺되어 있으나 漢代 司馬相如가 쓴 上林賦에 魏나라 사람 張揖이 注를 썼는데 그 注에 詩經 國風의 齊風, 伐檀篇을 「賢者가 明主를 만나지 못한 것을 刺한 것」이라고 한 序가 있다는 것이다. 魏나라에서는 齊詩를 익혔기 때문에 張揖이 齊詩의 序를 引用한 것이니 齊詩序가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論據가 稀薄하다. 張揖이 傳來의 詩序에서 引用했다고 言及하기 以前에는 確言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張揖自身の 見解일 수도 있고 또 齊詩를 治詩한 어느 個人일 수도 있을뿐 齊詩의 序라고 明記되어 傳하여져 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魯詩序에 對하여는 劉向(子政 B.C. 77~B.C.6)의 列女傳에 나오는 詩經의 引用을 들고 있다. 魏源은 劉向이 楚나라 元王의 孫이고 楚나라에서는 魯詩가 世傳되었기 때문에 劉向이 引用한 것은 魯詩序임에 틀림없고 또 그가 書籍을 著述하고는 故序에 對稱되게 新序라고 한 것으로 보아 魯詩에 故序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고 한다. 勿論 劉向이 詩를 引用하면서 魯詩序를 引用할 수도 있겠고 또 毛詩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校閱도 보았던 그 인 만큼 그 自身の 見解로 쓸 수도 있다. 또 「君子故序之於詩」나 「君子故序之以編詩」라고 한 語句는 매우 注目된다. 이 故序가 과연 魯詩의 故序인지, 毛詩의 故序인지 또는 他書의 故序인지 전혀 論及한 것이 없어 考證할 길이 없다. 다만 그가 著作한 新序를 詩故序와 對稱하기 위하여 그렇게 命名하였다는 것에는 異議가 있다. 新序는 春秋부터 漢初까지의 軼事중 法戒가 되는 것들을 輯集하여 解說한 書籍⁷⁾인 만큼 詩와는 전혀 關係가 없다. 구태어 對稱하기 위하여 이런 書名을 썼다면 詩序가 아닌 다른 故序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

詩經은 秦火以後 漢代에 와서 齊·魯·燕·趙의 四國에서 出現하였다. 이렇듯 傳來된 地方이 다르고 이것을 傳授繼承한 系統이 다르므로 師傳의 詩가 系統에 따라 그것을 治詩한 人物도 다르고 誥訓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만 齊·魯·韓의 三家詩가 亡佚된 오늘날 이렇듯 莫然하고 斷片的인 記錄으로는 秦火以前부터 傳來되던 詩序가 있었는가의 與否를 究明한다는 것은 至難하다. 이렇듯 三家詩에 詩序가 있었는가의 與否만으로는 詩序研究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고로 現今의 詩序研究는 現存되고 있는 唯一한 詩序인 毛詩序에 限할 수 밖에 없다.

4. 歷代毛詩序著者諸說

(1) 漢代諸說

7) 近藤奎編 中國學藝大辭典

毛詩序는 언제 누가 어떤 思想으로 著述하였는가? 먼저 著者부터 考究하여 본다.

이미 上述한 바 隋書經籍志에 「先儒相承謂之毛詩序, 子夏所創, 毛公及敬仲又加潤益.」이라 하여 毛詩序는 子夏가 처음 著作하였다고 한다. 子夏創作說은 어디에 淵源을 두었는가? 陸德明의 經典釋文에 다음과 같이 鄭玄의 詩譜序를 引用하고 있다.

大序是子夏作, 小序是子夏毛公合作. 卜商意有未盡, 毛公更足成之.

毛詩序의 子夏創作說은 鄭玄의 詩譜序에서 비롯된다. 鄭玄은 大序는 子夏가 著述하였는데, 後世에 毛公이 子夏가 쓴 小序중 뜻이 未盡한 것을 潤益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鄭玄보다 前代인 班固는 漢書에서 전혀 詩序에 대해 言及하지 않고 있다. 다만 漢書藝文志에서 「自謂子夏所傳」이라고 하였을뿐 子夏가 序를 썼다는 記述은 더욱이 없다. 또 鄭玄은 毛詩鄭箋, 卷第九末에서 詩序를 더 具體的으로 論하고 있다.

(小雅의 南陔·白華·華黍) 此三篇者, 鄉飲酒燕禮用焉. 曰笙入, 立于縣中, 奏南陔·白華·華黍是也. 孔子論詩, 雅頌各得其所時俱在耳. 篇第在於此, 遭戰國及秦之世而亡之. 其義則與衆篇之義合編, 故存. 至毛公爲詁傳, 乃分衆篇之義, 各置於其篇端云.

鄭玄은 小雅의 南陔·白華·華黍等은 鄉飲酒燕의 儀禮에 쓰이던 詩로 笙의 演奏에 맞추어 노래부르게 되어 있으며 縣에서 불렀다고 한다. 孔子가 「雅頌各得其所」⁸⁾라고 하였을 때 만하여도 있었는데, 戰國末 秦火때 散佚되었으며 그 序는 다른 序와 함께 合編되어 있었기 때문에 散佚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다. 毛公이 詁訓傳을 지었을때 各篇의 序를 各詩篇의 首端에 나누어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詩序가 秦火以前에는 各序가 合編되어 있었고 오늘 날에 보는 毛詩序가 各詩篇의 首端에 붙게 된 것은 毛公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즉 毛詩序는 子夏가 만들었다는 間接的인 示唆가 된다.

그런데 後漢書 儒林傳 衛宏列傳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衛宏·字敬仲 東海人也, 少與河南鄭興俱好古學. 初九江謝曼卿善毛詩, 乃爲其訓. 宏從曼卿受學. 因作毛詩序, 善得風雅之旨, 于今傳於世. 後從大司空杜林更受古文尚書, 爲作訓旨. 時濟南徐巡師事宏, 後從林受學. 亦以儒顯, 由是古學大興. 光武以爲議郎. 宏作漢 舊儀四篇, 以載西京雜事, 又著賦·頌·誄七首, 皆傳於世.

衛宏의 列傳은 비록 簡單하나 그의 事蹟에 對하여는 明瞭하게 記載되어 있다. 謝曼卿에게서 毛詩를 배워 毛詩序를 著作하였고, 大司空 杜林에게서 古文尚書를 배워 訓旨를 지었으며, 弟子로는 濟南人 徐巡이 있고, 後漢 光武時代에 議郎의 官職을 지냈다. 作品으로는 그 밖에 漢儀四篇과 賦·頌·誄七首가 있으며 世上에 傳하여지고 있었다. 衛宏은 그 生卒年代가 明確하지 않으나 스승인 大司空 杜林이 光武帝 建武二十三年(A.D. 47)에 卒하였

8) 論語 子罕篇: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고 또 그가 光武年間(A.D. 25~57)에 議郎의 벼슬을 했다는 記錄으로 보아 光武年間의 人物임이 明確하다. 그런데 鄭玄은 後漢 順帝 永建二年(A.D. 127)에 태어나서 獻帝 建安五年(A.D. 200)에 죽은 사람이니 衛宏과는 不過 一百五十餘年이 相距된다. 그런데도 그가 治詩하면서 衛宏이 詩序를 지었다는 事實을 몰랐다는 것은 納得이 가지 않는다. 또 後漢書를 撰한 范曄(蔚宗 A.D. 398~445)은 鄭玄과 二百餘年이 相距된다. 그리고 鄭玄이 治詩하여 當時에 이미 毛詩鄭箋이 詩經을 代表하여 行世한 時代였으므로 鄭玄의 文章을 믿지 않았을 理가 없는데도 果敢히 後漢의 大學者인 鄭玄이 論及한 것을 뒤엎고 毛詩序는 衛宏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當然히 그에 相應할 만한 論據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우기 范曄은 衛宏列傳의 末尾에 衛宏의 列傳과는 關係없이 毛詩에 關하여 強調하고 있다.

中興後，鄭衆，賈逵傳毛傳，後馬融作毛詩傳，鄭玄作毛詩箋。

上述한 바는 바로 그가 毛詩에 對하여 많은 關心을 가졌다는 또하나의 實證이며 自身의 記述을 再確認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三國時代 吳(229—280)의 陸璣(字元恪)는 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서 :

孔子刪詩授卜商，商爲之序。……九江謝曼卿，亦善毛詩，乃爲其訓。東海衛宏從曼卿受學，因作毛詩序，得風雅之旨

陸璣는 孔子가 刪詩하여 子夏(卜商, B.C. 507~B.C.400)에게 傳授하자 子夏가 이의 序를 著作하였다하고, 또 衛宏이 謝曼卿에게서 毛詩를 傳授받아 詩序를 著作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毛詩序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된다. 또 唐의 魏徵等이 撰한 隋書經籍志의 「先儒相承謂之毛詩序，子夏所創，毛公及敬仲又加潤益。」이라고한 記述等은 바로 鄭玄의 詩譜序와 後漢書 衛宏列傳사이에서 混迷하여 彷徨하다가 두 說을 綜合한 感이 든다.

唐書藝文志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韓詩二十卷，卜商序，韓嬰撰。

韓詩卜商序韓嬰注二十卷

韓詩에도 子夏의 序가 있다는 것이다.

上述한 諸書를 綜合하여 보면 子夏의 詩序는 毛詩에도 있고 韓詩에도 있으며 또 衛宏이 지은 것도 있다는 것이 된다. 子夏가 序를 著述했다면 毛詩나 韓詩의 區分이 있기전인 秦代以前에 著作하였을 것이므로 參差가 있을 수 없다. 韓詩는 唐代에 亡佚되었으나 殘缺本인 韓詩外傳이 現存하고 있으며 詩序도 數篇이 남아 있어 이를 毛詩序와 比較檢討 한다.

國風，周南 采芣篇：

毛詩序·「采芣后妃之美也。和平，則婦人樂有子矣」

鄭箋·「天下和·政教平也。」

韓詩序：「傷夫也」

國風·周南·漢廣篇：

毛詩序：「漢廣·德廣所及也·文王之道·被于南國·美化行乎江漢之域·無思犯禮·求而不得也。」

鄭箋：「紂時淫風徧於天下·維江漢之域·先受文王之教化。」

韓詩序：「悅人。」

上記 두 例文에서 본 바와 같이 同一한 詩에 對한 毛詩序와 韓詩序가 判異하다. 만약에 毛詩序와 韓詩序가 子夏의 作이라던 비록 傳授의 歲月이 長久하고 數多한 傳授者를 經過하였기 때문에 字句上의 訛脫은 있을 수 있으나 文義 조차 完全히 判異하거나 相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毛詩序와 韓詩序는 그 淵源이 同一人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唐代諸說

毛詩鄭箋이 行世하면서 三家詩가 漸次 衰退하자 詩序의 著者는 鄭玄의 詩譜序에 依하여 子夏說로 穩定되어 唐初 孔穎達의 毛詩正義에 까지 이른다. 孔穎達은 毛詩正義 詩譜序疏에서 다음과 같이 鄭玄의 主張을 再確認하고 있다.

據今者及亡詩六篇，凡有三百一十一篇皆子夏爲之作序。

唐代에 와서 鄭玄의 主張에 疑問을 품고 詩序를 穿鑿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成伯璵를 첫머리에 들 수 있다. 그는 毛詩指說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子夏惟裁初句，至也字而止；葛覃后妃之本也，鴈雁美宣王也，如此之類是也。以下皆是大毛公自以詩中之意而繫其辭也。

成伯璵는 毛詩序를 觀察하고는 鄭玄이 「大序子夏作，小序是子夏毛公合作。」이라고 한 說에 대해 異論을 提起하고 있다. 그는 詩每篇의 序의 첫머리에 나오는 「……也」까지는 子夏가 짓고 그 뒷부분은 後에 大毛公이 詩의 文義에 따라 지은 것이라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主張이 비록 劃期的이고 革新的인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傳來의 說에 대한 討究의 試圖라는 點에서는 높이 評價되고 있으며 그 후 宋代 學者間에 發生한 漢代 學術에 대한 疑古精神의 先聲이라 하겠다.

韓愈(退之 768~824)는 毛詩序의 著者에 대하여 大膽하게 異論을 提起하고 있다. 宋代 李燾, 黃樞의 毛詩集解에 韓愈의 詩之序議를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察夫詩序，其漢之學者，欲顯立其傳，因藉之子夏，故其序大國詳，小國略，斯可見矣。

韓愈는 詩序를 觀察하건데 그것은 漢代 學者들이 毛詩傳을 顯立시키고자하여 子夏가 지은 것이라고 憑藉한 것이며 그 理由로는 大國은 詳述하고 小國은 略述한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子夏가 썼다면 그런 偏頗의인 作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韓愈의 이러한 主張은 鄭玄에 대한 不信과 唐代 大儒家인 孔穎達이 勅撰한 毛詩正義에 對한 挑戰이

다. 唐代의 傳統派 儒家인 韓愈가 傳來의 儒家經典의 註解에 대하여 이렇듯 대담하게 새로운 反論을 提起하고있다는 事實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成伯璵나 韓愈가 進步의이고 革新的인 理論을 提起했으나 唐代에는 그 以上 進展이 없었다.

(3) 宋代諸說

宋代에 이르러 大儒家이며 大政治家인 歐陽修(永叔 1007~1072)에 의해 毛詩序著者에 대한 議論이 提起된다. 宋代는 疑古의 學風이 盛行하던 時代였으므로 詩經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經典全般에 걸쳐 새로운 學說이 量產되던 時代였다. 따라서 漢代 學術思想에 對하여 많은 批判이 나왔다. 歐陽修는 毛詩本義 卷十六에서 經解의 基本立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先儒於經，不能無失 而所得固已多矣。盡其說而理有不通，然後以論正之

그는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서는 詩本義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作序者多不得詩之眞意，斷爲非如子夏之賢者所作 其孔子所作尤不言可驗。

詩序를 보진대 作序者가 거이 詩의 眞意를 모르고 있어 단연코 子夏와 같은 賢者가 지은 것이 아니다. 孔子가 지었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된다고 했다.

上述한 바로 보아 孔子의 著作이라고 主張한 學者도 있는등 當時에 이미 적지 않은 論難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序問에서 :

或謂詩之序卜商作乎？衛宏作乎？非二人之作，則作者其誰乎？應之曰：書春秋皆有序而著其名氏，故可知其作者 詩之序不著其名字，安得而知之乎？雖然非子夏之作，則可以知也。曰何以知之？應之曰：子夏親受學於孔子，宜其得詩之大旨 其言風雅有正變，而論關雎鵲巢，繫之周公召公，使子夏而序詩，不爲此言。

歐陽修는 尙書나 春秋에도 모두 序가 있고 著者의 姓名이 있는데 唯獨 詩序에는 著者의 姓名이 없는 것으로 보아 子夏나 衛宏의 作은 아니다. 또 子夏는 孔子에게서 친히 詩를 배웠으므로 詩의 大旨를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詩序에는 風雅에 正變이 있다고 하였고 또 關雎와 鵲巢를 周公이나 召公에 連繫한 것으로 보아 子夏에게 序를 쓰게 하였다면 이런 記述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詩本義의 많은 部分에서 詩序의 不適合한 點을 指摘하고 麟之趾篇에서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則序之所述，乃非詩人作詩之本意 是太師編詩假說之義也。毛鄭遂執序意以解詩。是以太師假說之義解，詩人之本意宜其失之遠也。

그는 詩序를 太師들이 編詩할 때 붙인 假說이라 하여 太師의 作으로 보고있다.

范家相은 詩藩에서 王安石(介甫, 1021~1086)의 말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詩序者詩人所自製.

王安石은 歐陽修와는 反對로 詩序를 詩人の 自作이라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宋 晁公武(子止, 1144年 前後在世)는 群齋讀書志에서 다음과 같이 反駁하고 있다.

詩序蕭統以爲卜子夏所作, 王介甫獨謂詩人自製; 按韓詩序. 宋曹曰傷夫也. 漢廣曰悅人也; 序若詩人自製, 毛詩猶韓詩, 不應不同若是.

晁公武는 만약에 詩人の 自作이라면 毛詩序와 韓詩序가 같아야 할것인데 다른 것으로 보아 잘못된 說이라하고 있다.

程頤(正叔 1033~1107)는 二程遺書, 卷十八, 伊川先生語十에서

詩之大序分明是聖人作, …… 問小序何人作? …… 曰序中分明言國史明乎得失之跡 如非國史則何以知其所美刺之人. 使當時無小序, 雖聖人亦辨不得.

程頤는 大序는 틀림없이 聖人の 作이라하고 있다. 聖人이라면 孔子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小序는 國史의 作이라하고 있다. 그는 또 伊川先生語五에서도 거듭 強調하고 있다.

詩小序便是當時國史作

그는 詩가 著作된 當時의 國史가 아니고는 美刺의 批評을 내릴 수가 없으며 실사 聖人이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蘇轍(子由 1039~1112)은 詩集傳에서 다음과 같이 異論을 提起하고 있다.

今毛詩之序……其言時有反覆煩重, 類非一人之辭者, 凡此皆毛氏之學而衛宏之所集錄也.

蘇轍은 毛詩序를 보건데 反覆되고 煩重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毛詩를 배운 學者들이 써온 것을 衛宏이 集錄한 것이라하고 있다.

王得臣(彥輔, 嘉祐時 1056~1063 進士)은 塵史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蓋出於孔子. 非門弟所能與也 若關雎后妃之德也, 葛覃后妃之本也; 此一句孔子所題, 其下乃毛公發明之.

王得臣은 毛詩序의 初句 즉 첫머리의 「……也」까지는 孔子가 짓고 나머지는 毛公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上述한 諸家의 說을 보면 毛詩序의 著者를 孔子나 子夏의 作, 또는 毛公, 國史의 合作, 또는 毛公之學을 한 學者들의 說을 衛宏이 集錄한 것이니 하여 毛詩序를 儒家經典의 經解의 範圍內에 두고 著者의 範圍도 儒家의 大人物중에서 探索하고 있다.

鄭樵(漁仲, 1104~1160)는 歷代의 諸說을 果敢하게 否定하고 毛詩序를 批難하는데 가장

積極적인 人物이다. 그는 詩辨妄에서 다음과 같이 毛詩序를 論及하고 있다.

或者曰：大序作於子夏，小序作於毛公。此說非也。序有鄭註而無鄭箋，其不作於子夏明矣。毛公於詩，第爲之傳，其不作序又明矣。……謂大序作於聖人非也。……今觀序專取諸書之文至數句者。有雜取諸家之說，而辭不堅決者。有委曲宛轉，附經以成其義者。

鄭樵는 毛詩序를 子夏가 著作하였다면 宜當 詩序에 毛公의 傳이 있고 이에 따라 鄭玄의 箋이 있을 것인데 鄭玄의 註만이 있는 것으로 보아 子夏가 詩序를 著述한 것이 아니다. 또 毛公은 傳단냈지 序를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 詩序를 보건데 諸書의 文句를 專取하였거나 諸家의 說을 雜取하여 文辭가 堅決하지 못하고 委曲宛轉하여 經典에 附合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는 結論으로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詩序……皆是村野妄人所作。

그는 村野妄人의 作이라고 酷毒하게 批難하고 있다.

이렇듯 毛詩序의 著者는 孔子, 子夏에서 村野妄人으로 急轉直下한다.

鄭樵의 說에 가장 큰 影響을 받은 사람은 宋代의 大儒 朱憲(元晦 1130~1200)이다. 그는 朱子語錄 卷八十 및 晦菴先生語類要 卷第十六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不足信，向來見鄭漁仲有詩辨妄力詆詩序，其間言語太甚，以爲皆是村野妄人所作。始亦疑之；後來仔細看一兩篇，因質之史記國語，然後知詩序之果不足信。因是看行葦·賓之初筵·抑數篇，序與詩全不相似。以此看其他詩序，其不足信者衆多。以此知人不可亂說話，便都被人看破了。

大率詩人假物與辭，將上句引下句，如行葦：「勿踐履，戚戚兄弟，莫遠具爾」行葦是此兄弟，勿字乃與莫字，此詩自是飲酒會賓之意。序者却率合作周家忠厚之詩，遂以行葦爲仁及草木。如云：「酌以大斗·以祈黃耇」。亦是歡合之時，祝壽之意。序者遂以爲養老乞言 豈知祈字本只是祝頌其高壽，無乞言意也…

大率古人作詩，與今人作詩一般 其間亦自有感物道情，吟詠情性 幾時盡是譏刺他人。只緣序者立例，篇篇要作美刺說，將詩人意思盡穿鑿壞了。且如今人見人纔做事，便作一詩歌美之或譏刺之，是甚麼道理。

朱憲는 鄭樵의 說을 보고나서 비로서 詩序와 詩를 다시 자세히 檢討하여 보니 詩序가 詩의 本意에 맞지 않음을 알았다하고 詩經 行葦篇을 例로 들어 詩序가 詩의 本意와는 관계 없이 詩를 道德에 附會시켰다고 批難하고 있다. 그는 또한 모든 詩를 美刺說로 評한 것은 무슨 道理인지 모르겠다고 辛辣하게 批評하고 있다. 그는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結論짓는다：

大序說：止乎禮義 亦可疑。小序尤不可信，皆是後人託之，仍是不識義理，不曉事如山東學究者。

朱憲는 大序에서 「止乎禮義」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小序는 더욱 믿을 수 없으며 義理도 모르고 事理도 모르는 「山東學究者」와 같은 人物이 지은 것이라 하여 鄭樵의 「村野妄人」에 同調하고 있다.

그는 또 詩經遺說 卷一에서 自身の 經驗을 土臺로 詩經의 讀法을 다음과 같이 開陳한다.

今欲觀詩，不若且置小序及舊說，只將元詩虛心熟讀，徐徐玩味，候彷彿見個詩人本意，却從此推尋將去，方有感發。如人拾得一個無題目詩，再三點看，亦須辨得出來。若被舊說一局局定，便看不出。今雖說不用舊說，終被他先入內，不期依舊從他去。薰向作詩解文字，初用小序，至解不行處，亦曲爲之說。後來覺得不安，第二次解者，雖存小序，間爲辨破，然終是不見詩人本意。後來方知只盡去小序，便自可通。於是盡蕪蕩舊說，詩意方活。

上述한 바로 朱憲가 詩集傳을 세 번만에 完成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詩經에 대하여 얼마나 刻苦의 努力을 傾注하였는지도 알 수 있다. 위 글은 그가 詩集傳을 完成하고 나서, 學問하는 態度는 客觀的이어야 하며 先入見이 얼마나 讀者를 誤導하는가를 述懷하고 있다. 그는 虛心熟讀하되 詩人의 本意가 나타날때 까지 徐徐히 玩味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朱憲의 詩集傳은 그후 元·明代 七百年間 國定教科書와 같이 널리 普及되었고 詩經註解의 唯一本으로 行世하기에 까지 이른다. 元代 延祐科舉條例에는 科舉試驗의 詩經科目의 必須教本으로 詩集傳이 明示된 것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鄭樵, 朱憲에 이어 毛詩序를 排擊한 學者로는 王質(詩總聞), 程大昌(詩論), 王柏(詩疑), 曹粹中(放齋詩說) 등이 있다. 이중에 曹粹中(純老, 宣和 1119~1121 時代 進士)의 說은 매우 慎重하다. 그는 放齋詩說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毛傳初行時，猶未有序也。意毛公既託之子夏，其後門人互相傳授，各記其師說，至宏而遂著之，後人又復增加，殆非成一人之手。

曹粹中은 蘇轍의 說에 同意하면서 더욱 詳細히 考察하고 있다. 그는 毛詩傳이 처음 出現하였을 때는 詩序가 없었다. 毛公의 門人들이 자기 그들 스승들의 說을 記錄하여 두었던 것을 衛宏이 集錄하고 또 後人들이 다시 潤益한 것으로 결코 一人의 著作이 아니라하고 있다. 또 그는 毛公의 著作이 아니라는 根據로는 召南의 羔羊篇과 曹風의 鵲鳩篇, 衛風의 君子偕老篇의 毛詩傳과 詩序를 例擧하고는

傳意序意不相應，序若出於毛，安得自相違戾？

그는 만약에 毛詩序를 毛公이 著作했다면 毛詩傳과 詩序가 相應되어야 할터인데 同一人物이 著述한 것이 違戾된 것을 보니 결코 詩序는 毛公이 著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鄭樵·朱憲 등이 詩序를 이렇듯 酷毒하게 批難하는데 反하여 毛詩序를 擁護하는 一派들의 反撥 또한 甚大하다. 그들은 傳統的인 毛詩序가 아니고는 詩經은 絶對로 解得될 수 없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毛詩序 擁護派로는 呂祖謙(呂氏家塾讀詩記), 嚴粲(詩緝), 葉適(水心集), 黃震(讀毛詩), 馬端臨(文獻通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代表的人物이라고 할 수 있는 呂祖謙(伯泰 1137~1181)은 朱憲와는 거이 같은 年輩로 學問으로 來往이 가장 密

接한 關係였으나 朱憲가 鄭樵說을 追從하였음에도 그는 傳統의 毛傳鄭箋을 固守하고 있다. 그는 呂氏家塾讀詩記에서 毛詩序를 毛傳鄭箋과 같이 踏襲하고 있으며 특히 前人들의 注解중에 적지 않은 「朱子曰」을 引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朱憲의 詩集傳 初稿로 鄭樵說을 追從하기 以前에 著述한 것이다. 呂祖謙의 뒤를 이어 嚴粲은 詩緝에서 呂祖謙의 說을 이어 받아 毛詩序를 採用하고 있다.⁹⁾

葉適(水心 1150~1223)은 水心集에서 다음과 같이 詩經의 解釋에서 詩序는 不可缺한 것이라고 論述하고 있다.

詩序隨文發明，或紀本事，或釋詩意，皆在秦漢之前。雖淺深不盡當，讀詩者以時考之，以義斷之，惟是之從可也。若盡去本序，自爲之說，失詩意愈遠矣。

葉適의 說은 盲目에 가깝다. 그는 詩序가 詩의 文字를 밝혀내거나, 詩의 本事を 쓰거나 또는 詩가 담고 있는 뜻을 解釋한 것으로 모두가 秦漢以前부터 있던 것이다. 비록 詩序가 그 詩의 깊고 낮음을 完全히 맞게 풀이하지 못했다하더라도 詩를 읽는 者가 時期를 알고 뜻을 아는데는 오직 이것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만약에 詩序를 모두 除去하고 獨自의으로 풀이한다면 詩의 뜻은 더욱 멀어지고 만다고 한다.

또 黃震도 讀毛詩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夫詩非序莫知其所自作 去之千載之下，欲一旦盡去自昔相傳之說，別求其說於茫冥之中，誠難事。

詩는 詩序가 아니면 그 지은 까닭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千年後에 와서 하루 아침에 옛날 부터 傳하여 오던 詩序를 모두 除去하고 달리 그 說을 아득하고 어두운 곳에서 求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다.

上述한 이러한 諸說은 다만 詩經은 여러가지 뜻이 隱喻・內包되어있어 詩序가 없이는 絶對로 詩經의 本意를 알수 없으며 또 古代부터 傳하여 오던 詩序를 왜 구태여 버리려고 하느냐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들의 論意는 傳統說에 對한 盲目的 追從일뿐 論據가 없으므로 信憑性을 잃을 수 밖에 없다.

鄭振鐸은 讀毛詩序¹⁰⁾에서 詩經解釋의 態度를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我們自當以詩文爲主；不能據序以誤詩 詩序如與詩意相合，我們便當遵牠；如大背詩意，則不問其古不古，不問其作者之爲孔子抑他人，皆非排斥不可。

鄭振鐸의 이런 論理는 매우 妥當한 것이다. 우리가 詩經을 解釋함에는 마땅이 詩文을 爲

9) 何定生, 詩經今論, 宋儒對於詩經의 態度 「朱子又附和鄭樵之說以作集傳, 遂爲反毛派의 主流, 並且支配了宋以後七百年의 詩經學. 案朱子詩說, 初時也承毛鄭之舊, 所以當時和他來往最密의 呂祖謙在 他的呂氏家塾讀書記中, 還常引朱子의 話. 後來朱子改從鄭樵, 而呂氏仍堅守原來立場, 又有嚴粲의 詩緝, 是支持呂氏讀詩記의 」

10) 小說月報第十四卷, 第一號에 登載(1923年 1月 10日刊), 古史辨 第三冊下編